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하여 주시리라”
NGO 씨 말리는 니카라과...1천500곳 한꺼번에 폐쇄



니카라과 정부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 1천500곳을 한꺼번에 해산시켰다. 하루 새 이 정도 규모로 NGO 폐쇄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니카라과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온라인 관보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 운영 허가를 취소한 단체들”이라며 1천500개 NGO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명을 보면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으로 보인다. 동물 보호나 어린이 구호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도 켜 있다. 현지 일간 라프렌사도 “이번에 폐쇄된 시민사회단체는 가톨릭을 비롯한 교계에서 사회사업을 위해 주도로 운영했던 곳이 많다”며 하루 동안 1천500곳의 NGO가 폐쇄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폐쇄되는 단체들의 자산을 국가에 몰수하는 내용도 이번 조치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관보에 따르면 니카라과 내무부는 1천500곳의 NGO가 “회계연도 기준 1-35년 동안 기부금을 포함한 상세한 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포함한 새 규정은 불과 나흘 전에 나왔다고 라프렌사는 지적했다.

라프렌사는 이번을 포함해 6년간 5천100여 곳의 NGO가 니카라과에서 해산됐다고 전했다. 과거 니카라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니카라과에는 7천여 개의 NGO가 활동했다. 장기 집권 중인 다니엘 오르테가(78)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반(反)정부 시위와 2021년 대선 등을 전후로 사회단체에 대한 당국의 예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자들의 치료와 은신 등을 도운 종교계는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 가톨릭 주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거 구금하거나 외국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오르테가 정부는 이와 함께 야권 인사들을 수감하거나 언론을 탄압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7년 재선 뒤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을 없애고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취소된 법인단체 명단 중에는 한국단체도 몇 개 포함되어 있다. 법인이 취소되면 바로 국가에서 나와 단체의 모든 물건을 다 국가 소유로 압수하고 있다. 이에 소식통은 “이 땅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단체들을 일방적으로 떠나게 할 뿐 아니라 재산을 몰수하여 더욱 억압하는 독재정권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평정을 되찾도록” 기도를 부탁했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사도행전 8장:21-22)

하나님, 1,500개의 NGO를 하루 만에 해산시켜 자산을 몰수하고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등 독재 정치로 나라를 억압하는 오르테가 정권의 악한 행보를 주께 고합니다. 이들에게 바르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사 썩어 없어질 땅의 분깃을 탐하기보다 진리의 말씀과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간섭 하사 속히 니카라과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가 힘 있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여성 목소리·맨얼굴 노출 금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악덕 및 미덕법'을 처음 공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A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탈레반은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축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 중 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또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공공장소에서 노래나 낭송,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며 대중교통 이용과 혼자 여행을 해도 안 된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보거나 함께 있어도 안 된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살아있는 존재의 촬영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사무엘상 15:29)

하나님, 각종 규정으로 여성 인권의 탄압이 있는 아프간에서 더욱 강화된 법으로 이들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려는 탈레반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거짓과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아프간의 어둠의 세력을 파하여 주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프간 교회에 지존자시요, 거짓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세우신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참된 안식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 니제르, 3개월간 수해로 217명 사망...수도 고립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6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200명 넘게 숨지고 수도 니아메가 불어난 물에 거의 고립됐다고 연합뉴스가 AFP 통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니제르 군정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근 3개월간 전국에서 수해로 217명이 사망하고 35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인구 약 150만 명의 수도 니아메에서만 약 1만 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시를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가 대부분 물에 잠겼다. AFP 통신은 현재 카누가 도로의 버스 등을 대체한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군용 모터보트가 고립된 주민 수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1-3)

하나님, 지난 6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수도는 고립되며 피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니제르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수해로 인해 필요가 결핍된 곳에 섬김과 공급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돌봐주소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영혼에 복음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기독교 신학 논의하는 비공개 폐북 활동한 MBB 성도 2년째 수감



이집트에서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Muslim Based Believer, MBB)이 페이스북에서의 신앙 활동을 이유로 2년 반 동안 수감된 이후 최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 출신의 망명 신청자인 압둘바키 사에드 압도(54세)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후 압도는 2021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신학적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등록된 난민 신분이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테러 단체 가입’과 ‘이슬람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다.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은 압도가 최근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압도는 편지에서 아내와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4년 8월 7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교도소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내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를 체포했기 때문”이라면서 “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구속 기간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석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으로 체포된 기독교인은 압도뿐만이 아니다. 누르 기르기스는 “건너다”라는 뜻의 “알 아바린”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르기스는 페이스북 그룹을 주도하며 온라인 포럼에서 이슬람을 모독하고 종교 개종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엘 브라운백 전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대사는 최근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집트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요한3서 1:2,11)

하나님, 기독교 신앙 활동을 테러 단체 가입으로 간주하며 이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적대감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구속 기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단식 투쟁에 나선 압도 형제의 영과 육을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차별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집트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선한 것을 본받고 행하는 증인 되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부르키나파소, 무장단체 공격으로 200명 사망

부르키나파소 중부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주민 약 200명이 숨지고 최소 140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알자리 라 방송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4일 중부 도시 카야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르살라고 마을에서 발생했다. 군정 대변인인 장 에마뉘엘 우에드라오고 문화공보부 장관은 국영TV에서 “무장단체가 여성, 어린이, 노인,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JNIM(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서아프리카 사헬의 중심부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영토의 40%가 정부의 통제 밖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히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준동이 2015년부터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숨지고 200만 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이사야 59:3,20)

하나님, 부르키나파소에서 노인과 어린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만행을 고합니다. 주여, 이슬람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용해 손에 피를 묻히며 영혼을 도륙하는 배후 사탄을 파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회개로 돌이키게 하소서. 특별히 정부의 통제 밖에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자와 가난과 굶주림에 처한 자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계시하여 주사 구원을 얻어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우간다 기독교인, 무슬림 전도 이유로 살해 당해

우간다 동부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다는 이유로 한 기독교인을 칼로 살해했다고 모닝 스타뉴스가 2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 19일 괴한들이 요와부 세바카키(52)가 자전거를 타고 고향인 우간다 부다카 지역 무기티 서브 카운티의 난자 마을로 귀가하던 중 그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세바카키는 한 기독교인의 집에서 새신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수업을 인도한 후 데이비드 은콤바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세바카키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은콤바는 “농가에 도착한 지 5km 정도 지났을 때 오토바이가 우리 바로 뒤에 다가왔고, 순식간에 세바카키는 ‘팡가’(긴 소말리아 칼)로 보이는 물체에 맞았다”며 “그는 쓰러진 후 다른 팡가에 머리를 베었다. 세바카키는 출혈이 너무 심해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이웃들이 현장에 도착해 세바카키를 음발레의 병원으로 급히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태복음 13:31-32)

하나님, 무슬림들을 전도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우간다 기독교인의 비참한 죽음이 땅에서는 잠깐의 슬픔일 수 있겠으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욱 하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심어 놓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일 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때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와 같이 장성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예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독교인, “이슬람 개종 안하면 떠나라” 최후 통첩 받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말리의 모프티(Mopti) 지역 목회자들이 이슬람 지하디스트에게 교회를 폐쇄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영국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한 목회자는 오픈도어 현지 관계자에게 “지하디스트의 한 연락책이 나와 이 지역의 다른 목사들에게 편지를 가져와 만나자고 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규칙들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시한 기독교인이 따라야 할 규칙에는 “△모든 기독교인, 목사를 포함해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 △모두가 이슬람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지하디스트들에게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 △18세에서 4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매년 5,000 CFA 프랑(1만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이슬람 법에 따라 복장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투아레그 반군 아자와드 해방 민족 운동(MNLA)에 의해 2012년 고향 팀북투를 떠난 찰스 야바가 디아라 목사는 “전에 없던 심각한 상황”고 말했다. 2012년에 급진 이슬람 집단이 북부 지역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공격은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다. “교회는 파괴됐고, 기독교인들은 쫓겨나 집을 잃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슬람 세력의 장악 이후 말리는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고, 국가는 북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단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픈도어는 “민음의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요구를 따르고 싶지 않지만,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 교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말리 교회 그룹과 개신교 선교 협회(AGEMPEN)는 교회들에게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격려했으며, 바마코(Bamako)의 기독교인들도 18일 모임을 갖고 기도했다. 말리는 오픈도어 세계 박해 목록(월드와치리스트, WWL)에서 14위에 올라 있다. 월드와치리스트는 매년 기독교인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50개국을 선정해 발표하는 지수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립보서 2:12)

하나님, 이슬람 개종, 전쟁 참여 등 반기독교적인 규칙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행악을 일삼는 지하디스트를 주의 공의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포악과 압제를 도구 삼아 몸 된 교회를 두려움에 굴복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멸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슬림이 다수인 이 나라에 전에 없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박해받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는 몸 된 교회로 세워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대구 퀴어 행사, 9월 28일 개최 예정

대구에서 퀴어 행사가 9월 28일 열린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8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집회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한편, 퀴어 행사 반대 단체는 퀴어 행사가 열리는 다음 날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퀴어 행사 반대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집회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요한계시록 18:4-5)

하나님, 대구 퀴어 행사 참가자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그 일을 진행하여 명령된 일을 행하려는 어두움의 권세를 파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교회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의 공격수 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싸우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십자가로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 중국, 대리모 출산 업체 발각...아이 한 명에 1억 4,000만 원

중국에서 한 업체가 바이오기업 간판을 달고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해왔다는 중국 지역 언론 보도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가 외신들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중국 허난TV는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거의 버려진 자동차 무역 상가 지하에 대리모 고급 실험실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다. 실험실 부지 면적은 800㎡에 달해 중국 북부 지역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대리모가 아이 한 명을 대신 낳아주는 대가로 업체가 받은 돈은 75만 위안(1억 4,000만 원)이며, 아이 성별을 확인하려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20만 위안(약 3,740만 원)을 받았다. 한 소식통은 “병원 의사들이 대리모 업체와 결탁해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와 이식 등 불법 수술을 했고, 회당 비용 1,500위안(28만 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예레미야 4:4)

하나님, 창조주의 섭리에 반역하며 어린 생명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중국의 참담한 소식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갑시다. 대리모 사업으로 죄와 결탁한 모든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이오니 이들의 어리석은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고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이상 어린 생명이 유린당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결론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주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주만 바라게 하옵소서.